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월간자산운용보고서

(준법감시인심사필2011-172호)

마이다스옵티멈장기증권저축투자회사

2011년 04월

Fund Facts

투자 목적	현물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현재 주가보다 높은 행사가격의 콜옵션을 매도하여 얻는 옵션프리미엄 수입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률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운용개시일	2001-10-26
펀드 규모	24 억원
총보수	순자산평잔의 연 2.32%
환매수수료	없음

펀드운용실적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옵티멈장기증권저축투자회사	2.99%	4.83%	15.63%	25.43%	298.80%
참고지표	3.11%	4.62%	12.90%	20.32%	240.47%
초과수익률	-0.11%	0.21%	2.73%	5.11%	58.33%

※참고지표: KOSPI변동률*75%+CD금리*25%

수익률 추이

(2001.10.25~2011.04.29)

펀드매니저 리포트

지난 4월 한달간 펀드 수익률은 2.99% 였으며, 동기간 참고지표는 3.11% 상승하였습니다. 참고지표대비 수익률이 부진했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 화학 등 수익율이 양호하였던 업종의 비중도 높았으나 IT, 금융업 등 저조하였던 종목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황 반전 및 실적 개선을 기대하여 편입하였던 한진해운, 두산중공업 등이 4월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영향이었습니다.

주식 시황

지난 4월은 실적 시즌 돌입에 따라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한 자동차 업종의 주가 상승률이 두드러졌으며, 기존 주도 업종인 화학,정유 역시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종합주가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국내 금리 인상, 중국 지준율 인상 등 긴축,미국의 QE2 종료 우려가 지속되었지만, 일본 지진이후 상대적 수혜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된 가운데, 국내 증시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확대되는 등 실적과 유동성 증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소수 종목 중심의 지수 상승이 이어졌고, 업종별 순환매 역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종목별 수익률은 큰 격차를 보이는 등 시장이 양극화 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종목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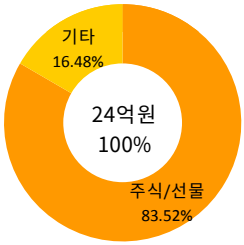
지난달은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LIG손해보험, 신한지주, BS금융지주, 삼성SDI, 삼성전자, 세아베스틸, GS, 금호석유, 오리온,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한국타이어, 대우조선해양 등을 순매수하였으며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메리츠화재, 삼성생명, 하이닉스, 동국제강, LG, SK이노베이션, LG화학, 한화케미칼, 기아차, 현대미포조선, 웅진코웨이, 동아제약, 두산중공업, POSCO, 현대제철, 한진해운, 대우인터네셔널, 엔씨소프트 등을 순매도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 중에는 현대차, 메리츠화재, LG, 코오롱인더 등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았으며, 두산중공업, 한진해운, POSCO, 삼성전자 등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습니다

커버드콜 전략

주가하락 위험을 줄이고 추가수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투자와 함께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4월 만기 콜옵션은 행사가격 275.0에 매도 하였습니다. 이후 4월 옵션 만기일 KOSPI200지수가 283.15로 종료됨에 따라 콜옵션 매도에 따른 손실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2011년 5월물 콜옵션은 행사가 297.5 를 매도하였으며, 5월 만기일 주가 흐름에 따라서 손익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현황

[2011.04.30 기준]



상위보유종목

[2011.02.28 기준]
(순자산총액 비중 39.92%)

삼성전자	10.65
하이닉스	4.20
LG화학	4.02
기아차	3.84
현대중공업	3.11
KB금융	3.00
현대차	2.91
LG	2.78
POSCO	2.76
우리금융	2.66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판매회사와 판매회사의 어떤 관계회사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본자료에 사용된 정보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정확성과 완전함이 보장되진 않으며, 본 자료상의 운용계획은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운용 전략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현수익률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으며, 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투자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